

연탄값 인상에 후원도 급감 에너지빈곤층 '힘겨운 겨울'

4년새 70% 올라 한장 소매가 800원 광주 연탄은행 기부 1만장→2000장

연탄 가격이 오르고 후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면서 광주지역 저소득가정 등 '에너지빈곤층'이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법상공동체연탄은행, 연탄은행정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는 2328가구가 연탄을 사용 중이다.

대부분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인 이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소득이 미미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연탄 값이 4년 새 70%나 오른 데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들에게 연탄을 후원하는 도움의 손길이 뚝 떨어졌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에 기부된 연탄은 2000여장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여장이 기부됐던 것에 비해 70% 넘게 줄었다는 게

연탄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로 연탄을 기부했던 기업들도 올해는 기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연탄은행측은 지난해 광주에 기부된 연탄은 총 5만여장 이었지만, 올해는 현재 기부 속도면 1-2만장에 그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탄 1장당 소매가격이 지난 2015년 500원에서 지난해 800원으로 70%나 오른 점도 부담이다.

연탄을 배달할 경우 실제 구매가격은 1장당 1000원에 달해 올 겨울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국춘 연탄은행 대표는 "매년 연탄나눔 봉사를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기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 후원도 지난해 70%이상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층은 대부분 고령대로 각종 질환 등에 시달려 도움이 절실하다. 사람의 연탄을 배달하는 연탄은행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마스크 잘 써야 미세먼지 막아요” 12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미세먼지 예방캠페인에서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원생들에게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 요령과 마스크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올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은 7명, 하위법관 5명이다.

우수·진절 법관으로는 ▲김지후(45·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류종명(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상재(46·연수원 3기) 광주지법 형사7단독 부장

판사 ▲정재희(45·연수원 31기) 광주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최두호(42·연수원 32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김재향(45·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김지후·류종명·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관은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

게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신속하게 재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은 부장판사급 4명, 판사급 1명 등 5명이었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 사례로는 소송관계인에게 냉소적으로 언행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 등이었다. 또 소송대리인을 당사자 취급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무례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18·20일 '동네책방서 만나는 인문학' 강연

지역 중소서점 활성화 나서

광주시 북구가 사라져 가는 지역 중소서점 살리기 위해 나선다.

북구는 "디지털 시장의 확대에 위축돼 가는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과 20일 '동네 책방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강연은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서점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매곡동 초원문고에서는 '1일 1행의 기적', '독기행 다이어리', '데모의 힘'의 저자 유근용 작가를 초청해 '1일 1행의 기적'

독서하고 기록하고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독서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는 재즈밴드 '리피어'의 공연이 더해진다.

20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양산동 파랑새어린이서점에서는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의 저자이자 SNS '엄마의 그림책' 운영자로 활동 중인 이지현 작가를 초청해 '그림책이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 어른 그림책을 펼쳐다'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이나 관련 문의는 광주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북구청 도서관과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행안부 '안전교육기관' 선정

호남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 안전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호남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일 소방행정학과와 경찰학과 등 2개 학과가 함께 신청한 행정안전부의 '2019 안전교육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대학교는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폭력안전 및 성폭력안전 등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대 안전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든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도의회 통과

정책국 신설과 각 사·군 학교지원센터 확대를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국·행정국 2국 체제에서 정책·안전 등 업무를 총괄한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환된다. 정책국장은 일반직 부이사관(3급)이나 장학관이 맡는다. 정책국에는 정책기획과·혁신교육과·안전복지과·노사정책과 등을 두고, 사학지원·노무 등 학교지원과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 마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달뜨기 18:21
해질 17:21 달짐 08:14

감기 조심하세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광주	구름많음	-2/10	보성	구름많음	-7/9
목포	구름많음	-2/8	순천	구름많음	-2/12
여수	구름많음	2/10	영광	구름많음	-4/9
나주	구름많음	-5/10	진도	구름많음	-2/10
완도	구름많음	0/11	전주	흐림	-3/9
구례	구름많음	-7/10	군산	흐림	-3/9
강진	구름많음	-4/11	남원	흐림	-7/9
해남	구름많음	-5/10	흑산도	구름많음	4/11
장성	구름많음	-5/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남서	0.5
	면바다(서)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면바다(동)	남동~남	0.5~1.5	남~남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0.5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남~남서	0.5~1.0
	면바다(동)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목포	07:44	20:25	02:22	15:10
	15:52	03:15	09:52	21:52
여수	07:44	20:25	02:22	15:10
	15:52	03:15	09:52	21:52

◇주간 날씨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씨	☀	☁	☁	☁	☁	☁	☁
시간	3/10	0/14	5/16	9/16	6/11	3/8	0/7

◇생활지수

- 감기: 매우 높음
- 뇌졸중: 높음
- 미세먼지: 좋음